

제 230 호

부활 제 2 주일

(사백 주일)

1977. 4. 17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당신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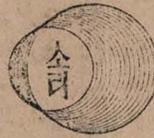
이태주 신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상의 비참한 죽음으로 스승의 모습이 지상에서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회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바심에 가슴을 조이며 몸을 도사리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평화를 빕니다.」(요한 19, 20) 하시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걱정과 공포는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제자들이 환희와 기쁨에 넘치는 그 순간은, 온 인류가 기다리던 구원의 완성된 표징이 세상에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중 하나는, 더 나은것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꿈을 가꿈 포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괴로운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안되는것이 많을 뿐 아니라, 아예 바랄 것도 없이 잡아당기는대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자야포기에 빠지도록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면 계속되며, 결리고, 포기 싫은것이 많다고 바랄 것도 없이 사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이 끝난다면 슬픈 일입니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대로 안되는것이 많더라도 귀중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고, 운명에 모든 것을 뒤집어 써워 팔자소관에 자신을 맡기고 무관심해서도 안됩니다. 무관심속에 사는 이들은 모든 것에 초연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메마른 무뚝뚝한 사람들로서 불의를 보아도 분노치 않고 진실을 보아도 지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사실은 모든일에 있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심을 둔화시키며, 아무도 믿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하느님을 조작하여 거짓과 이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핑계를 댑니다. 이런속에서 우리 자신이 빛을 따라 갈길이란! 밝고 무한한 희망을 버리지않고, 용기를 가지며, 적은 실망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쁨과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마다, 희망의 불을 켜들고, 인생의 의미를 잃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주님의 평화를 전해야 하겠읍니다.

(용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침묵의 죄

「최후의 심판날에... “주여! 나는 주교였고 추기경도 했습니다. 나의 생전에...” 주는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허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도덕성(道德性)으로 침묵만 지키고 겁쟁이로 가만히 있었다. 그 착취자 및 이용자들과 우정 및 교분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도와준 결과에 이르렀다. 나는 그 불의한 조직때문에 굶주렸고, 너는 나를 먹이지 않았노라...”」

이 글은 필리핀의 천주교 신자인 아빌라가 쓴 농민신학(Peasant Theology)의 어느 한 대목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잘못이 없다고 자처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깊이 묵상해야 할 마태오 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해설이다.

침묵의 죄는 부작위(不作爲)에서 나오는 죄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은(××을 하는...(例) 죄를 짓는) 작위(作爲)의 것만을 지금껏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을 하지 않은(例) 사랑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죄에 대해서도 깊이 깊이, 항상 묵상해야 한다. 특히 인간을 올바르게 제도해야 할 책임을 진(가르치는 사람들)과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언론은 왜 독자로 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사회의 목탁이어야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 할 때 우리 언론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8페이지의 지면이 무엇으로 메워져 있다. ...뭐 그 신문이 그 신문이니까... 언론하면 인직논정(言直論正)이란 어귀가 떠오른다. 글자의 뜻 그대로 “말이 곧고 의론이 바르다”는 말인데,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말이다...」

대화(對話) 잡지 4월호에 실린 발언대의 글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끄는가?

## 숲정이 산책



살찐 시골본당 돼지  
살찐 도시본당 신자

# 4월의 증언(證言)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분이다.  
 4·19 이 나라의 民主回復을 위하여 젊음을 불살랐던 뜨거운 피가 솟구쳤던 殉教의 그날이 가까운 역사 안에 있었다.  
 이에 또 그날을 기억하며 四月의 證言들을 간추려 본다.

##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4·19 당시 14세인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陳英淑)양이 총탄에 맞아 희생되기 4시간 전에 쓴 유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뵈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 나는 알아요.

—〈4·19 당시 수송국민학생인 강명희양의 시〉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며는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놀음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었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릅니다.

## 4월과 5월과 6월

—〈길현모(吉玄謨)씨의 글 가운데〉

「4·19가 우리 지성인들에게 준 최대의 교훈은 그것이 한국 지성의 철저한 무능과 빈곤을 여실히 폭로해 주었다는 점에 있다.……민주 혁명으로서의 4·19의 제 특성(諸特性)과 이에 입각한 미래 전망에도 보다 진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4·19 좌절론(挫折論)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4·19는 좌절되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헛된 피를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우리들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막힌 자기부정(自己否定)인가.」

우리 교수들이 피를 흘려서라도 데모를 하자.

싸라!

아저씨여! 형님여! 당신들은 우리와 다같은 국민인데 총을 쓸 수 있겠습니까?

국군만세!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 결 혼

김진규 씨 차남 장 수근  
 황희상 씨 매순덕(크리스티나)양  
 일시: 4월 21일(목) 11시  
 장소: 천주교 전동교회  
 주례: 김 환 철 신 부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으로!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 태 광 사

유영문(차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Pax Romana

매년 부활절 다음주일을 가톨릭 학생의 날로 제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제, 가톨릭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Pax Romana 운동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I. Pax Romana 운동의 뜻과 목적

Pax Romana란 「로마의 평화」란 뜻으로 다음 목적을 위해 모인, 전세계 가톨릭 학생 및 지성인들의 운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1. 회원 상호간의 진정한 우추애를 창조하고,
2. 상호 접촉을 통하여 그리스인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지향하며
3. 형제애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4.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 가톨릭 지성사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II. Pax Romana 운동의 현황

Pax Romana 운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한 사회의 그리스도화」를 목적으로, 1888년 스위스의 바른·몬테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후리브르크」에 있고, 아시아 사무국은 「홍콩」에 있다.

1935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톨릭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55년에는 한국 가톨릭 학생회가 Pax Romana에 가입하였으며, 현재에는 각 대학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SCF, YWCA등의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III. Pax Romana 운동의 의의

이러한 Pax Romana 운동은 지성을 통하여 하느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우애를 조직화함으로써, 국제 가톨릭 학생회 및 지성인 단체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의 정신을 길러준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의 발휘는 회원간의 사상과 경험 교환에 유익하며, 그들을 전인적 가톨릭인으로 양성되게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Pax Romana는 교회내에서 다른 조직체들에 대하여 학생과 지성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 IV. Pax Romana 운동의 방향

1. 복음의 생활화로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 성숙을 지향한다.
2.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승하기 위하여 미사와 성서연구, 전례행사, 신학강좌를 가짐으로써 현대에 도전하는 신앙인으로써 최선을 다한다.
3.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교리경시대회와 하느님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한 성서 모임, 그리고 학생운동을 재창조하는 학생대회, 수련회를 가지며,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4. 지역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각 대학간의 교류를 갖고, 지방의 학생대회에 참가하며, 아시아 대회와 국제 Pax Romana 대회에 대표를 보내며, 다른 대학생 단체와도 교류를 갖는다.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 ●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부활절은 지났는데도 부활이 없어서(?) 인지 대전주보는 아직도 수난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번에는 쟁그리 거두어 가더니, 이번 4월 10일자에는 5면과 6면이 싹둑 잘릴 수밖에 없었다. 공판기, 증언대, 뒷소식이 실린 면이 수난을 당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잡지만 잘리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다.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다.

## 요십이 (194) 김병오



□이 전 안내□

### 성원 약국

성원 표(스페파노)

□태평동 전대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⑤ 5780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S 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대동지업사**

전주시 풍남동 1가 17번지  
전화 2-5986 2-3765  
임정원(도민교)

□개업 안내□

**건축 상담 환영!!**  
설계·감리·허가 수속



###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금구<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새로나왔다! 삼화수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일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 부 활 상 회

대표 주원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가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⑤143)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제 양성을 위한 돼지 저금통 중간 소식
  - ①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등(15만원), 대야(9만원), 정읍(20만원), 김제(20만원)
  - ② 각 본당은 세대별로 봉헌된 명세서(예: 김막동-5천 2백원, 박수돌-7천 4백원...)를 교구에 보내시기 바람-쥬정이에 명단 발표하겠음.
  - ③ 사제양성 후원회 임원(조성호, 강예순, 김병구, 김은홍, 장준수, 한상갑, 안득수, 이태영, 조해형, 한형수, 조정만, 김정생, 서정길)회의가 4월 18일 오후 6시 교구청 사복국에서 있음...빠짐없는 참석바람(개별 통지 생략)
2. 교구 사제 전체 회의(19-20일)
3. 인성회 창립총회(다음 주일 오후 2시, 교구청 회의실)
4. 전북 대학교 교사·학생 활동 일치미사(20일 오후 5시반, 전북 대학교 학생회관)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18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센터)
  - 교구 인사(4월 7일자) ●교구 총대리직에 계시던 김종택 신부님이 건강상 사임하셨습니다.
  - 범석규 신부...사무처장 겸임, 한기호 신부...둔울동 보좌
  - <구>이삭회 재발족 총회<오늘 오후 1시, 가톨릭센터> 교리, 음악 및 대화 통한 사랑과 신앙심 강화 목적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북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북 석

**(서학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오 현 태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강담
  2.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봉헌 바람 <미사중 봉헌 예정 때나 사도회 사무실에>
  3. 구약성서 완역 판매: 성마오로서원, 값 2,500원
  4. 관공 성사 안보신분은 평일 미사 전후에 보시오
- 지난주 봉헌금: 253,250원

1. 부녀주일(월머니·어머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부활절 감사미사: 22일<금>, 10시 40분 자산, (중바위)
  3. 미사시간 변경: 아침 6시, 저녁-8시
- 지난주 봉헌금: 83,13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회 사도 회장 박 종 용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전 종 근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성모회·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반상회 일정안내: 우아동 구역-삼덕반 (18일<월>, 최 테레사)/인후동 구역-베드로 반 (19일<화>, 전 베드로), 가잠반 (20일<수>, 김루카), 요셉반 (21일<목>, 이야고버), 농원반 (22일<금>, 김비리사)
  3. 특별기금: 무교적의 김마리아 (복순)씨 1만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활 주일헌금: 117,450원

1.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오늘까지 봉헌바람
  2. 주일 미사시간 안내  
아침 6시반, 공식미사-10시, 오후 7시반
  3. 교리시간 안내
    - ①세례 준비 교리반<화~금>오후 8시  
※일요일은 공식 미사후<11시>
    - ②첫 영성체 준비 교리반<화~금>오후 4시반
    - ③주일학교 아동 교리반<토>오후 4시반  
※주일 날 오전 9시
- 지난주 봉헌금: 118,78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1282 주임 신부 박 종 근 보좌 신부 김 용 환 사도 회장 김 용 환

1. 미사시간 변경: 주일 저녁미사-7시반, 어머니미사-<월>오전 10시, 월요일 제외한 평일-오후 7시반
2. 학생 춘계 단합 대회: 24일, 많은 참석바람
3. 새로 영세하신 분들께 주님 성령이 가득하시길...
4.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빠짐없이 봉헌하시요
5. 감사합니다
  - ①성모상 건립기금-1십만원, 익명
  - ②신축 헌금-김정두, 이동숙(각 5천원)  
총계 5,698,500원
  - ③부활절에 수고하신 학생회원 여러분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윤 섭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축하 합니다! 김 안철보 보좌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21일<목>
  2. 꼬미씨음: 오후 1시반
  3. 동반회의: 저녁 미사후
  4.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봉헌 마감합니다
  5. 중·고생 웅변 신청  
※신교활동, 봉헌정신, 학생활동
  6. 축! (부부)영세자 환영, 교우일동
  7. 예비자 등록마감: 5월 1일
  8. 부활절 꽃 봉헌 대단히 감사합니다
  9. 교도소에서 영세식: 22일<금>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354,66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중 길 보좌 신부 조 성 로 사도 회장 조 성 로

1. 신자들의 기도: 박상기, 장동수, 이명숙, 이종구, 조정희
  2.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아동교리: 매주<토>오후 3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4. 환자 봉성체: 27일<수>
- 합동미사 감사 봉헌금: 90,600원  
□ 지난주 봉헌금: 88,115원  
□ 인성회비: 33,300원

## 주의수난 성지주일

### 제1부 : 성지행렬 (4월 3일 오전 10시)

1. 신자들은 축성할 나무 가지를 들고 성당앞에 모인다.
2. 주교님께서 제의를 입고, 교우들이 모인곳으로 오실때 “호산나, 다위의 후손...”을 노래한다
3. 주교님의 인사와 예식에 대한 권고.
4. 기도
5. 성지축성
6. 복음낭독 : 루가 19, 28-40
7. 평화의 행렬

행렬 하면서 부르는 노래 :

1. 헤브레아 아이들이 올리바 가지를..... (시 23)
2. 헤브레아 아이들이 옷을길에.....(시 46)
3. 그리스도 왕께 드리는 성시

주교님께서 성당에 들어가실 때 부르는 노래 :

성가 120번 “엄위하오신 주 천주,”

### 제2부 : 미 사

평화의 행렬이 끝나면 주님께서 본 기도로부터 미사를 계속한다.

제1 독서 : 이사야 예언서 50, 4-7

총제송 후렴 :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2 독서 : 필리피서 2, 6-11

복음전 노래 :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죽기까지, 더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도다.

수난복음 : 마르코 복음 15, 1-39

영성제송 :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실수 밖에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Handwritten text at the top of the page, possibly a title or header.

Handwritten text in the upper middle section of the page.

Handwritten text in the middle section of the page.

Handwritten text in the lower middle section of the page.

Handwritten text in the lower right section of the page.

Handwritten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